

特別寄稿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2002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조 휘 갑

차 례

- I. 정보보호 환경 변화
- II. 주요 사업 추진 방향
- III. 지식 정보 강국을 위하여

I. 정보보호 환경 변화

1. 정보보호 환경 변화

인터넷과 정보기술에 의해 조성된 사이버 세상은 우리 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 주요 사회 경제 활동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도 2000년 17조원에서 2001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인터넷 이용 기반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 또한 짙게 마련이다. 사이버세상은 인류에게 엄청난 유익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보격차 문제, 각종 사이버 범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컴퓨터 바이러스 중 코드레드 는 전 세계적으로 30만대의 컴퓨터에 침입해 26억 달러의 피해를 끼쳤고, 서캠은 1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는 등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해킹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국내 해킹 피해 건수는 1999년 572건, 2000년 1,943건, 2001년 11월 말 현재 4,949건으로 3년 사이 약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피해 역시 2001년 한 해만 6만 여건이 넘어섰다.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1만 4천여 건에 달했다.

사이버범죄가 크게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범국가적으로 정보 보호 기반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기반의 사회 경제 활동 확산에 따라 사용자 인증, 기밀성, 무결성 등 인터넷 정보 유통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할 정보보호 환경 정비가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1999년 590억 원, 2000년 1,700억 원, 2001년 3,000억 원으로 해마다 2.3배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급성장은 국가차원에서 정보보호 선도 기반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체제 확충 등 국내 정보보호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2.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역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2001년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승격되었고, 이 법률을 비롯한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여러 새 임무를 부여받았다.

KISA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및 기술 지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새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KISA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기능 강화 △전자거래 신뢰성 제고 △핵심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조성 △정보보호 인력 양성 촉진 등을 주요 업무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방향 아래 KISA는 △해킹·바이러스 침해사고 대응 △전자서명 인증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정보보호기술 개발 △정보보호 교육·홍보 △산업 지원 기반시설 구축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지원 등의 주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KISA는 정보화 선진국의 초석이 되는 안전한 정보유통환경을 구현하는 세계 일류의 정보보호 전문기관을 지

향하고자 한다.

II. 주요 사업 추진 방향

1. 정보보호 기술 개발 사업 추진 방향

가. 기술분석 사업(Technology Analysis)

인터넷의 보안 취약성은 인터넷 접속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 등과 같은 인프라 설계상의 보안 취약성에 기인한다. KISA는 이러한 취약성이 내재된 플랫폼 상에서 동작하는 악성 행위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기술분석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시스템 보안 정책에 대한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 스캔기술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윈도NT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킬러 프로그램이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KISA에서 추진하는 기술분석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 정보보호 기술 발전 전략 수립과 산업체의 기술 개발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산·학·연 각 분야에서 정보보호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투자가 제대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의 근간을 제공하는 정보보호 기술개발 계획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이를 통해 매년 투자되어야 하는 기술 분야가 선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KISA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정보보호 기술·제품의 격차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즉, 주요 정보보호 기술을 분류하고, 분야별 기술에 대하여 국내외 표준 분석, 기능·성능 비교 등을 통하여 국내 기술의 경쟁력, 기술 격차 등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마련하는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

나. 기술개발 사업

1) 정보보호 사업 지원 기술 개발

기술개발 사업은 KISA에서 추진하는 정보보호 사업 지원 기술 개발, 그리고 새로운 정보보호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뉴 프런티어(New Frontier)기술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2002년부터 KISA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하여 취약점 점검 및 보안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현재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은, 알려진 취약점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직접 수행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 진단되는 형식으로 실제 시스템에 이들이 존재하는 지 스캐닝하는 수준의 취약점 진단 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보호의 기본 출발점은 대상 시스템이나 환경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들 취약점을 틈타 시스템에 피해를 가하는 공격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히 알려진 보안취약점에 대한 파악만으로는 적절한 보안대책 수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네트워크 내·외부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공격자의 위치에 따라 보안 취약점에 접근할 수 있는 논리적 접근 경로의 존재 유무와 공격자의 지식 정도, 이러한 공격에 대비한 방어 메커니즘의 전개와 능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 최근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보안취약성 분석 기술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취약점 진단에 적절한 기술적 수단이 될 것이며, 2002년에는 이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연구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암호기술은 일부 전문가에 의한 제한된 특별 기술로부터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반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보보호 메커니즘의 핵심기술로서 다양한 정보보호 시스템에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암호기술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침입차단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 블록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 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암호프로토

콜 안전성 평가기술, 메시지인증코드(MAC) 안전성 평가기술 등이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사업 지원을 위해 개발되는 기술이다. 현재 KISA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한 분야이며,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결과들이 속속 산출되어 있다. 지난 3년 동안 KISA는 암호기술의 사회적 이용에 요구되는 신뢰기반(KMI)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2002년에는 이러한 기술이 그 결실을 맺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2) 뉴 프런티어 기술 개발

대표적인 뉴 프런티어 기술로는 침입 감내(Intrusion Tolerance)기술을 들 수 있다.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보호에 임하는 기본 태도는 "지진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을 전제로 방재 대책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공격자가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제어기술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구성하여 주요 서비스나 기능이 연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 침입 감내 기술이다. KISA는 2002년에 1단계 연구를 끝내고, 가시적인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기술은 전통적인 비밀성 보장을 위한 기술에서 무결성, 가용성을 위한 기술로 진화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반의 생존성(Survivability) 보장을 위한 기술로, 인간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의존성(Dependability) 향상을 위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진화 속에는 다양한 학문이 합쳐져서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키며, 상상을 초월하는 제품 시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정보보호 기술의 진화에 강한 관심을 갖고 우선적인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누구보다 먼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일류 기술을 탄생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KISA는 2002년에도 선도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전략 수립, 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 정보화로 인해 나타나는 국가사회적 부작용 요소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2. 정보통신 기반보호 사업 추진 방향

가. 해킹·바이러스 대응의 선진화

해킹·바이러스 대응 업무는 해킹·바이러스 조기 예·경보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해킹·바이러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KISA는 해킹·바이러스 조기 예·경보 시스템(eWAS: early Warning and Alert System)을 구축할 예정이다.

2002년 12월 기본 기능이 구축되는 eWAS는, 다원화된 정보 수집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능동적인 예·경보시스템이다. eWAS는 정보 분석기능이 강화된 실시간탐지기(RTSD, Real Time Scan Detector)로부터 입수되는 해킹 시도 정보, 「트래픽 통계산출 시스템」의 통계자료, 국내 민간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라우터,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의 로그 정보, 주요 컨설팅 업체가 보유한 취약성 정보, '사이버 118' 및 국제기구, 국외 협력 침해사고대응팀(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등을 통하여 입수되는 정보를 종합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예·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해킹·바이러스 실시간 예·경보 S/W인 시큐어메신저를 통해 신속히 네티즌들에게 전파하게 된다.

최근 해킹·바이러스 사고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해킹·바이러스 사고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 국외 CERT들과의 협력 및 공조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KISA는 2002년에도 FIRST, VB, AVAR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본·중국·말레이시아·홍콩 등 아시아 지역 CERT팀들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분야의 해킹·바이러스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CERT간 모임인 CONCERT(Consortium of CERT)활성화와 관련해 CERT 구축 및 운영지침을 개발하여 민간기관의 CERT설립과 운영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 정보통신기반보호 지원 사업

2001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규정돼 있듯이, KISA는 해킹 등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점 점검기술 개발 및 지원, 집적정보통신시설(IDC)의 안전·신뢰성에 대한 평가 등 정보통신기반보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SA는 취약점 분석·평가 모델, 자산분류지침, 위협분석지침, 위험산정지침, 취약성분석지침 등을 개발하여 공개하였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계획수립지침 등을 개발하여 왔다.

2002년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호 대책 구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점과 대책에 대한 검토, 각종 자동화도구 선정을 위한 지침 마련, 효율적인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산업체·관리기관에의 기술 이전, 취약점 분석·평가 관련 관리기관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23곳이 지정되었으며, 올해에도 상당수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KISA는 관리기관들이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호대책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역량을 총 집중할 방침이다. 그 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에 따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IDC의 정보

보호 대책 수립에 대한 이행점검을 2002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 정보보호 산업 지원 시설 활성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체의 기술력 강화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작년 10월 구축되었다. 현재 900평 규모에 네트워크 보안, 암호, 공개키 기반구조(PKI), 안티 바이러스, 생체인증 등 5개 분야의 제품 성능 시험실을 갖추고 51종의 시험장비, 교육장, 세미나실, 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그간의 시험실 운영결과와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단계 구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체기술(Bio Tech)에 의한 정보보호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문 및 얼굴 인식DB 구축·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산업체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정보보호관련 기술 및 시장동향정보 제공, 국내 정보보호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정보보호 평가 인증 사업 추진 방향

가. 전자서명인증기반 조성 및 활성화

1)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 5개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뱅킹·사이버 증권거래를 중심으로 전자서명 이용이 활발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전자서명을 이용한 보안 전자우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전자서명 이용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1,000만 명 확보를 목표로 전자서명 이용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ISA는 이러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지원, 지침 개정 및 신규 시책 추진 등 전자서명 인증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공인인증기관 지정 관련 실질심사 및 안전 운영 정기 점검, 공인인증기관 간 상호 연동 추진, NPKI(National PKI)와 GPKI(Government PKI)의 상호연동 추진 지원, 무선 인터넷 전자서명 인증기반 조기 구축 등 공인인증기관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등 전자서명 이용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발굴하고, 금융·의료 등과 연계된 복합 카드에 전자서명 인증서 탑재를 추진하며, 전자서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개발 등 전자서명 인증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가 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협력 체계 구축, 국가 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방법론 개발, 아시아 PKI포럼 총회 참가 및 실무그룹 활동 지원 등 국가 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추진을 통하여 기업 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 무선 PKI 활성화

무선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무선 환경에서의 전자거래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선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전자서명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선 PKI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의 경우 단말기 성능이 제한적인 관계로 관련 기술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용된 기술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유·무선 PKI 상호연동을 보장하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KISA는 2000년 11월 무선 PKI 기술기준을 발표한 후 2001년 8월 무선 인증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무선 PKI 기술규격 11종을 발표하였다. 또한 KISA

의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내에 최상위인증기관 무선 인증시스템을 2001년 6월말 개발하였고, 8월말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지정기준과 평가지침을 개발 완료하여 무선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공인인증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은 무선 PKI 기술기준과 기술규격을 준수하여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KISA의 실질심사를 거쳐 2002년 초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유·무선 PKI 상호연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무선 상호연동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규격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스마트카드 탑재 무선단말기와 WAP 2.0 규격을 반영한 무선 PKI 기술규격·기술 개발을 통해 무선 PKI 기술규격을 업그레이드하고, 유·무선 PKI 상호연동 모델 및 기술규격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KISA 내에 구축된 무선 PKI 시험환경을 이용하여 상호연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미 개발된 무선 PKI 기술규격의 국내외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나. 평가·인증제도 활성화 및 국제화

1) 다양한 평가등급의 정보보호제품 평가

최근 들어 ATM고속통신망 등 통신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드웨어 기반의 침입차단시스템 및 기가비트(Giga-bit)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출현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의 고속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등급(K1~K7) 중 주로 K4 수준의 평가 인증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이 주로 보급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 중반기에 정보통신부에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활성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평가 등급의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K2 수준의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에 대한 평가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는 국내 각 기관의 보안 요구 사항에 적합한 평가

등급을 지닌 정보보호제품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가을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등의 여파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평가 수요는 올해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KISA는 올해 복수 제품에 대한 동시 평가 실시, 탄력적인 평가반 운영, 평가방법 자동화 등 평가 도구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며, 공통평가기준(CC)기반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해 선진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기반 평가·인증제도 구축

정부와 KISA에서는 정보보호제품 평가의 다양화와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9년에 ISO/IEC의 표준(문서번호 15408)으로 제정된 CC의 국내 수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평가 추세를 보자면, 지난 1998년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평가를 시행하던 선진 5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을 중심으로 CC기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CCRA)이 체결되어 작년 까지 총 14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권과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KISA는 2002년 하반기부터 공통평가기준 기반의 시험평가를 시행할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CCRA에 인증서 발행국으로 가입할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국내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 확보와 관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평가기술의 국제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새 평가·인증제도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KISA는 △국내 평가기준으로 CC고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CC기반의 평가·인증지침 개발 △다양한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CC기반의 보호프로파일 개발 △보호프로파일 평가방법론 및 평가기술 개발 △정보보호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평가 제출물 작성방법론

개발 △CC기반의 평가방법론 및 평가기술 개발 △CC번역서 및 해설서 개발 △국의 선진평가기관들과의 국제 공동 평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CC기반의 선진 평가기술 습득 등 CC수용에 적극 대비하는 여러 업무들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환경에 적합한 CC 기반의 평가·인증 스킴 개발, ISO, ICCC(International Common Criteria Conference) 및 CCMC(Common Criteria Management Committee)등 국제회의에 국내 평가·인증제도의 홍보 및 발표 등 상호인증협정 가입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4.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방향

KISA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량의 개인정보가 수집·축적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사례 등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KISA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를 반영하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 △효과적인 개인정보 침해 구제 및 고충 처리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개인정보보호 사업의 주요 방향으로 잡고 각종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

최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인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간 정보유통(TBDF), 국제 전자상거래 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선결 과제로 개인정보보호를 꼽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KISA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연구를 더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 많은 선진국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을 제·개정했다. KISA는 이들 나라의 새 법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이를 참고로 구체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연구 기반을 더욱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이 분야 국제 협력으로도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

나. 효과적인 개인정보 침해 구제·고충처리

KISA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KISA 고유 부서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또는 수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구제 시스템을 더욱 전문화·효율화해 나갈 방침이다. KISA는 2000년 4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운동을 시작으로 약 15,000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침해 관련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를 수행하여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 창구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02년도부터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문화된 고충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절차의 표준화·체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민원관리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것이다.

다.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본래 개인정보보호는 일차적으로 정보 주체 및 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식 및 문제 해결의지를 가져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 및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미흡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ISA는 우리 사회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먼저 사회 각 분야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자율규제의 촉

진 수단으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각종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활동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우리 사회 저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보호는 전자상거래를 비롯하여 전자정부의 구현, 그리고 여타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KISA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 및 피해 구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주도하고 더 나은 개인정보보호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사생활 권익 보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Ⅲ. 지식 정보 강국을 위하여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져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디지털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정보화 선진국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전략과 치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부, 기업, 연구기관, 학계, 인터넷 이용자 등 모든 주체가 혼연일체가 돼 안전한 디지털 정보 환경 구현을 위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역시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올해에도 해킹·바이러스 조기 대응, 정보통신기반 보호 지원, 전자서명 인증 기반 조성, 평가인증제도의 국제화, 전략적인 정보보

호 기술 개발, 개인정보보호기반 조성,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 제고 등 정보보호 관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디지털 정보 환경 구축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 던져져 있다. 우리가 산업화에는 비록 선진국들보다 늦었다고는 하나 지식 정보 강국 건설에서만큼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엄청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IT산업 지원과 함께 각종 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업계도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식 정보 강국을 가꾸는 일에 나부터 앞장설 때 디지털 코리아의 미래는 밝다.



조 휘 갑

〈학력〉 고려대학교 통계학과(경제학사),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대 대학원(경제학석사), 국방대학원 수료, 〈주요경력〉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관리과장,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투자계획과장, 세계은행 피견근무(경제전문가),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물가총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판행정관(국장), 통계청 통계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現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